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분노 다스리기

(약 1:19-27)

Anger Management

(James 1:19-27)

우리는 화내는 것과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화, 분노, 혈기 내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약 1:19-20).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 때문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요일 3:15).

모든 분노에는 살인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욱 더 두려운 것은, 형제를 미워하여 마음에 살인하는 자들 안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 4:26-27).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날 수도 있으나 이 살인의 씨앗, 살인의 냄새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그 살인의 씨앗이 얼마나 자랄지 모르는 일이며 그 살인의 냄새가 어떤 악취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약 1:19-20)

분노를 해결해 나가려면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습관을 배워야 하고, 둘째는 말하기는 더디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참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큰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약 1:21).

(2) 혀에 재갈을 물려 입단속을 잘해야 합니다.(약 1:26).

성도 여러분,

우리가 쏟아놓은 분노들로 인해 우리는 이미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할 때마다 우리는 살인의 악취를 풍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분노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과 책망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며, 아무리 사소한 분노라도 그것이 큰 광풍으로 변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깨달아 오로지 온유한 성품으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We do not take resentment seriously but the Bible deals with the problem made by anger very seriously.

“My dear brothers, take note of this: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and slow to become angry, for man’s anger does not bring about the righteous life that God desires” (James 1:19-20).

James encourages people to be quick to listen and be slow to speak but we are quick to speak and slow to listen to a situation. In our daily life, the reason why we are not able to make a righteousness life is that we fume and fret, make complaints, and feel resentment.

“Anyone who hates his brother is a murderer, and you know that no murderer has eternal life in him” (1 John 3:15).

The seed of murder is planted in all rages. This is the reason why Jesus says that anyone who hates his brother in his mind is a murderer. Nevertheless, something more fearful is that there is no eternal life for those who hate and murder their brothers in their mind.

“In your anger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and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Eph 4:26-27).

Paul the Apostle emphasizes how dangerous it is to get angry..Though you get angry, or feel resentment, it means that you do not go to bed with this seed of murder and smell of murder. Because we do not know how high the seed of murder grows and how bad the smell of murder emits during the night. Paul the Apostle gives us a warning of which if we do not resolve the feeling of anger, we can give the devil a foothold.

“My dear brothers, take note of this: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and slow to become angry, for man’s anger does not bring about the righteous life that God desires” (James 1:19-20).

If you want to resolve the anger, firstly, you have to listen carefully and learn the habit of listening, and secondly..you have to be slow to speak.

If we cannot overcome anger, it will be a big sin that compromises God’s holiness, God’s glory, and God’s loyalty.

If so, how can you solve the problem of a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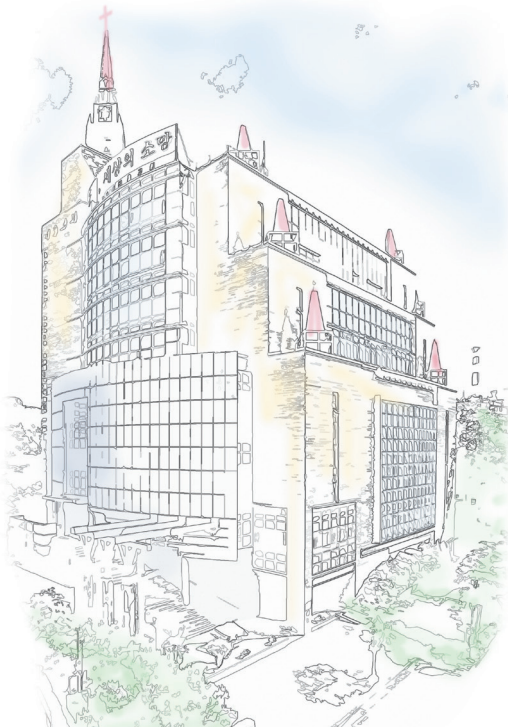
(1) We should receive God’s word with mildness.(James 1:21).

(2) We should crack down on our mouth to keep a tight rein on our tongue (James 1:26).

My beloved Christians,

We have already given a lot of people injury by the anger that we poured out, and whenever we pour out our anger, we live our life by giving off the smell of evil..

Today, we must receive the words that God points out and reproaches for the problem of anger into mildness and keep a tight rein on our tongue. By realizing the dangerousness because we cover God’s righteousness by getting anger, and even a small anger brings a big gale,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live your real victorious life with a mild personalit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6 흥해작전 진행 중

주제 :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합 3:2)

기간 : 6. 6(월) ~ 6. 25(토) 오전 5시

지난 주 2016년 흥해작전 발대식을 시작으로 2016년 흥해작전이 시작되었다. 주제는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합 3:2)이며, 기간은 6월 6일(월)부터 6월 25일(토)까지이며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이다.

영아부에서 고등부 학생들까지 7번 이상 출석하여 2층 안내석에서 출석 스탬프를 확인 받아 25일 제출하면 출석상을 준다. 흥해작전 기간 동안 전교

인이 참여하는 특별행사로 사행시(흥해작전), 오행시(진정한 부흥, RENEW), 은혜 간증문 쓰기 시 행하며, 교회학교에서는 백일장(산문, 사행시, 오행시), 그림 그리기 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갖는다. 흥해작전 기간동안 금요기도회는 개인적으로 하며, 주일에는 5시30분에 새벽기도회로 모인다.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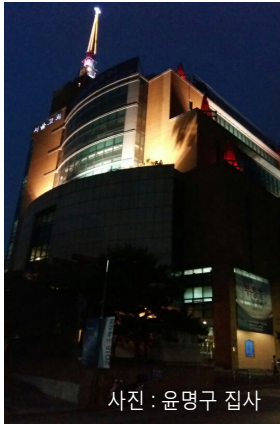


사진 : 윤명구 집사

2016 전도위원회 하계 국내 전도

전도위원회(위원장 최광성 장로)는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강원도 고성군 대진중앙교회(김춘기 담임목사)와 금년에 처음으로 충북 청주시 오송제일교회(김운호 담임목사)에서 하계 국내 전도를 실시한다. 전도위원회는 청년부를 중심으로 한 교회학교팀, 의료선교팀, 축호전도팀, 이미용봉사팀, 시설지원팀, 식당봉사팀과 동역하여 “교회를 돕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 (1) 주제: 복음의 빛으로 일어나라(엡 5:14)
- (2) 조직
 - 지도: 서명철 목사 · 단장: 최광성 장로
 - 총괄: 예완식 집사 · 서기: 홍창훈 집사
 - 회계: 박수옥 권사
- (3) 일시 및 장소
 - 1차: 7월 11일(월)-14일(목) 대진중앙교회
 - 2차: 7월 27일(수)-30일(토) 오송제일교회

이종운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크리스찬의 선교

(마 29:18-20)

선교는 전도와 구별된다. 자국민에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문화권이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한다.

1. 선교의 긴급성

선교는 왜 그렇게도 긴급하게 요청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죄는 회개할 줄 알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선교의 긴급성은 선교가 인구 증가나 기독교 확장에 비례해서 같이 증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긴급히 요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 기독교 세력의 쇠퇴 때문에 선교는 더욱 긴급하다. 서구 기독교 세력의 쇠퇴로 자연스럽게 선교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금 이 빈 자리를 모슬렘이 메우고 있다. 모슬렘을 국교로 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복음의 긴급성은 우리의 빛진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복음에 빛진 사람들이므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므로 하나님께 그 빛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므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한다.

2. 누가 선교를 할 수 있는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선교사의 모델이다. 바울은 성령에 붙잡힌 자였다. 사도행전 16:6-10을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므로 비두니아로 향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허락지 아니하시므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중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방향을 정했다. 성령의 명령을 따라 사는 바울은 진정한 선교사의 모델이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자였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잡힌다



호산나대학 IT 페스티벌 수상

지난 4월 28일 개최된 KT와 함께하는 IT페스티벌에서 호산나대학은 총 11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태블릿 정보검색대회 부문 최우수상(이경태), 태블릿 정보검색 부문 장려상(강태우), 데스크탑 정보검색대회 부문 우수상(송창진) MS경진대회 부문 장려상(전명수)을 수상하였다.

권유정 교수(호산나 대학)는 장애학생의 IT능력 향상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경기도의회의장상을 수상하였다.

교회주변 불법주차 금지

강남구청은 종교시설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의 증가로 교회주변의 불법 주·정차 견인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성도들은 교회 주변에 이열주차, 보도주차, 횡단 보도 및 교차로 주차를 금지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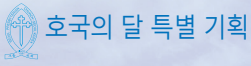


는 말과 말씀 충만해서 말씀에 잡힌다는 말은 같은 의미이다.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바울은 사랑에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힌 자였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만이 선교를 할 수 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24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곧 자기의 사명이라고 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사명이 있다. 따라서 선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되는 사명이다.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9:21에서 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한다. 우리는 이 비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함으로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바울은 이 비전을 자신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했다. 누군가 만들어 내서 그대로 따라하다가 힘들면 후퇴하는 그런 종류의 비전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은 힘들어도, 억울해도, 매를 맞아도 따라가야 한다.

우리들이 선교를 한다 함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대명령이므로 우리는 이에 순종하고, 이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다음 주 계속)



교회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

"국가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존재한다"

지난 주 북한이 영변 핵단지의 5MW(메가와트)급 원자로에 쓴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는 국내외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빼내 식힌 다음 재처리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북한이 영변에서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2월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고, 이러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인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앞으로 수 주 또는 수 개월 안에 북한이 5MW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MW급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되면 북한은 이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매년 핵무기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약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국제사회가 그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을만큼 심각한데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의 핵개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그리 크지 않다. 다음은 김철홍 협동목사의 지난 주일 장년부 성경공부 시간에 있었던 시국에 관한 강의 내용이다. (편집자 주)

"저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대통합위원회 포럼 위원으로 이념 분과에 속해 있습니다. 이념 분과 안에는 8명의 위원이 있으며 그 가운데 통일전문가가 한 명이 있는데 지난 번 포럼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발제를 했습니다. 발제하고 토론 할 때의 원칙은 항상 반대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분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좌파쪽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토론했습니다."

이 포럼 때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고 핵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초청받아서 온 사람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은 협상용이 아니고 실전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은 900개가 있는데 이것은 1분에 60개씩 동시 발사해서 15분간 계속해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물량으로 900개의 미사일 중에 대체 어느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군이 사드를 배치해서 남한을 방어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드가 절대로 그것을 다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드는 남한에 있는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 사용화에 근접해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지난번에 위성 발사를 통해서 이미 대기권 밖으로 위성을 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다시 대기권으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그때 생기는 심한 마찰열을 견디는 기술을 북한은 곧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미 성공한바 있습니다. 미사일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30km 지점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이것을 실패라고 보는데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미사일의 기술의 본질은 점화해서 수면 밖으로 나와 날려보내는데 있고 비행거리는 연료주입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종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북한이 핵무기로 선제 공격했을 때에 국방부, 육군본부, 청와대 할 것 없이 서울에 있는 것은 다 끝장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청와대의 지하벙커도 견디기 힘들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야전부대 지휘관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북한이 밀고 내려왔을 때 미국

이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약속했으니 평양에 핵을 떨어뜨려서 보복공격을 해줘야 하는데 미국이 과연 남한을 위해서 북한 보복성 핵공격을 하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측 대답은 "I am not sure!" 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로 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미 대륙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곧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어서 태평양에 놓고 전쟁을 시작하고, 만약 미국이 평양에 핵공격을 했을 때 북한은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에 핵공격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내부적으로 무너져서 해결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로 확정된 트럼프가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한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저성장이 장기화 되는 국면에 있고 경제 성장은 이미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 사회 갈등이 점점 고조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핵폐기 문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아직도 교회밖에 없고, 교회가 끝까지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날 김철홍 목사는 국가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존재한다고 했다. 우리가 흥해작전을 호국의 달 6월에 그것도 6월 6일 현충일로부터 6월25일 6.25전쟁 발발일까지 하는 것도 교회가 나라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흥해작전 기간 동안이라도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심각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서울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정리 : 노창훈 집사 (편집부)



자격없는 나를...

이경태 성도(호산나 대학)

처음 시험을 볼 때 나는 평범한 학습지를 푸는 줄만 알았습니다. IT경진대회 후보자 선출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다음날 소식을 들어보니 내가 『호산나 대학의 대표』로 IT 페스티벌에 참가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나에게는 짐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대회에 참가해도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대회를 위한 연습을 피해 다녔고 나를 설득하는 교수님을 늘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늘 반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보다

더 끈질긴 교수님으로 인해 어둠속으로 도망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서 연습이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날 포기하려 할 때 교수님들의 격려와 기다림으로 난 내 모습을 찾았습니다. '갑쟁이'가 아닌 '대표'로서의 나를...

IT 경진대회는 정신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연습 때와 같이 대회에 임했는데 예상 밖의 결과!! 내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행운권으로 전기밥솥까지 받았습나다.

저를 호산나대학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호산나대학에서 꿈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며 행복할 것입니다.

2016 흥해작전

가나안땅에 들어가는 2 날까지



예안식 집사
(예배참모부)

2016년 흥해작전이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라는 주제로 승전을 위한 진군이 은혜롭고 순조롭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매일새벽 여명을 가리며 원근각지에서 달려와 새벽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서울교회의 전통이며 자랑으로 지난 25년간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안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흥해를 갈라주시되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 흥해작전을 의례히 해왔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지난해 흥해를 건너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올해는 기필코 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해 달려가면 주님께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

습니다.

특히 이번 흥해작전은 갈라지고 찢기우며 상처투성이로 변해가며 흔들리는 서울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숭한 소문과 장로교회인 서울교회에서 당회를 부정하는 가당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등 장로교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백척간두의 기로에선 위중한 이때 서울교회를 위하여 나를 비롯한 모든 성도는 물론 당회와 목회자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주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서울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때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흥해를 건너야 할 것입니다.

흥해를 건너기 시작하여 이제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데 벌써 나오병이 생기고 전진보다는 흥해를 두려워하며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년 1,000 명 이상의 성도가 진군을 같이 하였는데 올해는 500 명 수준으로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신발끈을 동여매고 흥해를 향해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배웠기에 우리는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 쓰러져 가지만 저 가나안 땅을 향한 발걸음은 멈출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동산인 서울교회를 바로 세우고 한 형제 자매로서 연합하고 화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흥해를 가르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당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며 온전한 말씀만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흘러나갈 때 서울교회가 회복 되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016 흥해 작전

아빠, 흥해작전 댁요

정은지 (초등부 5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5학년 정은지입니다. 저는 6월만 되면 아빠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아빠, 흥해 작전가요"입니다.

저는 흥해작전 가는 것을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며칠 가다가 나중에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면서 안 가시려고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저는 조르고 졸라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흥해작전을 갔어요. 이 일이 저에게 있어 한 해 동안 제일 큰 일을 해 냈다는 보람을 안겨 주거든요.

우리 가족은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저와

제 동생 은채는 거의 틈만 나면 찬양을 해요. 새벽이 오면서도 은채는 "흥해 어떻게 건넸나~" 노래를 하면서 오늘은 절대 예배시간에 안자야지 하면서 또 잠을 자요.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것이 저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는 시간인 것 같아 너무 좋아요.



흥해작전에 가서 새로운 말씀을 듣고 나면 내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죄가 멀리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도 언젠간 우리에게 행복이 전해지잖아요.

우리 지금도 행복이 전해지고 있어요. 바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길, 더 많은 사람이 흥해 작전에 나오길 기도할거예요.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그 동안 입원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하였다. 그 동안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들에게 감사 드린다.

■ 개업 : 8교구 강명신 권사 김밥을 부탁해(김밥집) 서초구 사평대로 22길 28 반포동 공간빌라 2층

■ 주일식당봉사 : 안드레 빌립 선교회(6.12) 리브가 전도회(6.19)

■ 금주의 식사 제공 : 송용훈 집사 김경진 권사 가정 (자녀 결혼 은혜 중에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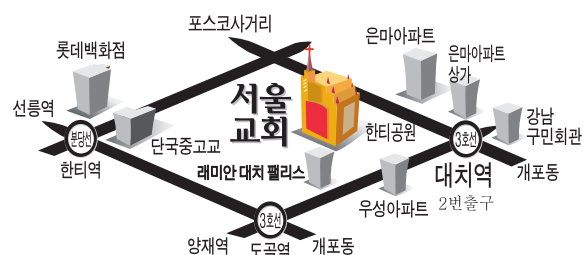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계속 되는 흥해작전에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회복과 부흥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2.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3. 방글라데시 비전트립(8월 8일-15일)이 잘 준비되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